

첫삽과 세월

백 리 순

내 태어난 이 기슭 락원의 이 땅에
나무모를 심으며 삽날은 번뜩이는데
문득 발아래 흐르던 보통강이
잠시 그 흐름 멈추고
나에게 속살대는듯

내 잠시 삽을 들고
생각하노라
수령님 쓰시던 첫삽
국토건설의 장쾌한 서곡인양
버림받던 불모의 기슭에 친히 박으신 첫삽!
꽃피날 락원의 선경 설계도를 펼치시며
그이 안아보신 그날의 첫삽을!...

질척질척한 감탕판에
층층 쌓아올리는 제방쪽에
점점이 떨어지던 더운 땀과 함께
삽우에 뜨신것은 정녕 흙이었던가
그날의 첫삽을 따라
우리 할아버지세대들이
듬뿍듬뿍 떠올린것은 정녕 무엇이었던가

속삭이며 어리광치며 흘러가는
저 보통강 유정한 물결이
이 가슴에 새겨주어나
그날의 첫삽이 있어
이 기슭에 펼쳐진 국토건설의 노래소리
이 땅에 울려 퍼진 창조의 세찬 동음
그리도 드높고 장쾌하였다고

이 기슭에 불비 쏟아지던 그날
용약 총을 든 할아버지세대
어이해 두손에
보통강 너의 물 정히 떠담고
주머니에 이 한줌흙 고이 싸안고

포연헤쳐 락동강까지 부디 나갔던가

내 태어난 이 기슭에
날마다 행복의 은빛추녀는 높아지고
세상사람들 부러워하는
사회주의절경 펼쳐졌어도
대학교문을 나선 나의 아버지
수도건설장에 삶의 뿌리 내렸나니

평양과 떨어져선 살수 없어
평양과 맺은 정 고이 품어안은 이 딸도
세대와 세대를 이어
그날의 첫삽에서 시작된
이 나라의 국토건설력사우에
아름다운 위훈의 자욱을 수놓으려
이처럼 부풀어오르는 한가슴에
더 멋지게 가꾸어갈 그대
내 사랑 평양의 모습을 그려보노라

아, 첫삽
수령님을 따라
우리 선대들이 떠올리고
우리 세대가 떠올린것은
애국의 더운 땀으로
이 땅에 뿌린 창조의 씨앗!
세기의 하늘높이 빛나는
부강번영의 열매였다

그것은
첫삽에서 흘러온
어제와 오늘 래일...
국토건설의 눈부신 력사우에
무궁번영할 세월이었다